

## 新疆의 古代 出土服飾에 관한 研究

金 容 文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Ancient Excavated Clothing in Xinjiang

Yong-Moon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Instructor of Chun Buk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A.D.589)의 出土服飾
I. 序 論	1. 호탄(和田)의 로프산푸란 (洛浦山普拉)墓
II. 文化的 背景	2. 민풍(民豐)의 니아(尼雅)墓
III. 先秦時期 (B.C.19C~B.C.9C)의 出土服飾	3. 로프노르의 고대(高台)墓
1. 공작하(孔雀河)古墓와 로프노르	4. 이리현(尉犁縣)의 영반(營盤)墓
2. 하미(哈密)의 우보수(五堡水) 古墳	5. 투르판(吐魯番)의 카라호자 (哈喇和卓)墓
3. 체르첸(且末)의 자글리크 (扎洪魯克)墓	V. 結 論
IV. 漢代~南北朝時期 (B.C.200~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lothing excavated in Xinjiang, concerned with the study of clothing culture in Central Asia.

The results are as follows :

A headwear is a corn hat or round hat, the material is felt, fur or woolen textiles. For hair accessories, feathers or wooden pins were used. The corn hats of the Scythians and the Huns also had same design and did not change even after being influenced from the culture of Han Dynasty. A woman's hair style was many strips of braid, a man's hair style was a braid or a topknot.

Regarding the clothing, a woman wore pull-over type and a man wore caftan for a jacket. Both a man and a woman wore widened coat and trousers as well as felt socks and leather boots, and longer socks than boots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thing of nomadic horsemen.

The textiles was mainly wool, but silk was used for coats, socks and gloves in high society imported from China through the Silk Road after the 2nd century B.C.

Compared with Korea clothing, a corn hat, widened coat, trousers and leather boots are similar with those of Koguryo.

The influence of western culture is shown in a man's short hair, animal design, W-Kum, a woman's pull-over type and a round neckline.

## I. 序 論

복식과 인간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형태와 재료, 색채 등은 시대적, 지역적, 민족적 특성을 보여준다. 복식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복식을 통하여 경제, 정치제도, 사회 풍속, 미적 관념, 민족적 전통을 알 수 있다.

고고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분이 발굴되면서 적지 않은 고대 복식의 실물과 옷을 입고 있는 흙인형 나무인형이 출토되었다. 新疆에서 출토되는 千年古尸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생전의 복식, 裝束, 직물 등을 알 수 있으므로 新疆 고대의 민족, 사회 풍속, 복식 및 고대 해부학 등에 중요한 자료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B.C. 19세기부터 A.D.6세기까지의 新疆에서 출토된 고대 복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의 복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한국 복식 기본형과의 관계를 밝히는 선행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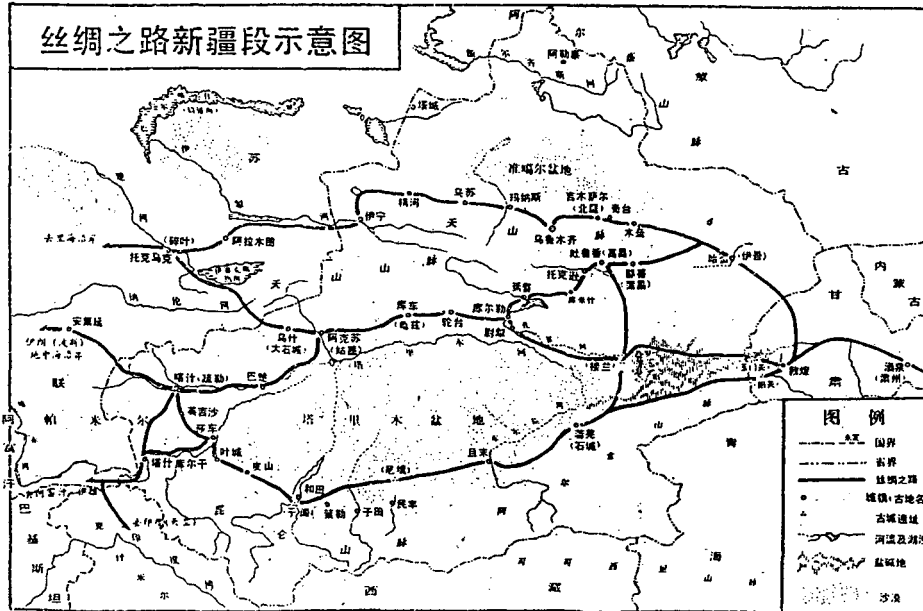
연구 방법은 新疆文物考古研究所, 新疆위구르自治區 博物館, 巴州文物保護管理所 등을 現地 답사하여 出土遺物을 조사하였고, 유물의 발굴 보고서와 文獻研究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출토복식을 실측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으므로 중국과 일본에서 조사 발표된 도록과 논문을 재인용하는 점이다.

## II. 文化的 背景

新疆 지역은 동투르크스탄이라고 하며,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천산 산맥, 남으로는 곤륜산맥에 둘러싸인 지역으로 오아시스 국가가 번영하였다. B.C.2세기~A.D.3세기에 걸쳐 작은 국가 형태로 존재하면서 서역 북도와 남도의 두 길로 정리된다. 서역의 남도는 야르칸트(Yarkand, 薄車), 호탄(Khotan, 和田), 니아(Niya, 尼雅), 체르첸(Cerchen, 且末)을 통해 미란(Miran)에 이른다. 북도는 카슈가르, 악수(Aksu, 阿克蘇), 쿠차(Kucha, 龜茲), 카라샤르(Karashar, 焉耆), 투르판(Turfan, 高昌)에 이른다(그림 1).

西域은 [漢書]에 敦煌以西로 동서 6,000여리를 한정하고 있어 돈황지방을 중심으로 그



<그림 1> 新疆의地圖 (『新疆風物志』)

이서 지방을 가리키는 의미로 서쪽 끝은 파미르 고원이라고 하였다.<sup>1)</sup> 광의로는 멀리 서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까지를 일컬으며, 협의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하는 타림 분지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흔히 중국의 서역 진출은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때(B.C. 139~126)를 말하지만 중국은 殷代(B.C.1766~1123)에 이미 호탄産의 옥을 사용하고 있었다. 타림분지 오아시스와 황하 사이의河西라고 불리는 곳은 띠모양의 반사막지대로 중국의 서역 진출 통로였다. 漢代에 이곳의 敦煌을 지키게 하여 640년에는 투르판 지역에 안서 도호부를 두었으며 곧이어 카라샤르와 쿠차도 복속시켰다.

타클라마칸 사막의 오아시스에 살던 사람은 西域人으로서 유명하다. 그들은 아리아계에 속하고 이란·인도 문화를 가지고 있다. V字形의 앞부분은 敦煌에 가깝게 되어 있다. 天山山脈 및 崑崙山脈의 각각 東部에서 유목민의 힘으로 개척하고, 中國의 농경 문화는河西通廊을 지나서 敦煌에 가깝게 집했다고 인식되어 진다. 물론 중국의 문화가 파급한 것은 B.C.121년 이후에 많다.<sup>2)</sup>

中央아시아의 주민과 문화는 한마디로 '複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역의 이익을 얻고자 東西의 상인이 이 지역을 왕래한 결과 여러 민족의 혼합과 혼혈이 발생하여 그 문화에는 사방의 다른 문화가 침투하여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sup>3)</sup>

1) 『前漢書』卷 96上 西域 第 66上  
 “西域以孝武時始通本三十六國其後稍分更·····東西六千餘里南北千餘里東則接漢殷以玉門陽關西則限以葱嶺”  
 2) 松田壽男(1981), 『シルクロードと日本』(東京:雄山閣), pp.14~15.  
 3) 平凡社(1982), 『アジア歴史事典』卷 6, pp.180~183.

### Ⅲ. 先秦時期的 出土服飾

先秦時期的 출토복식 자료는 孔雀河古墓와 로프노르에서 출토된 복식과 하미의 우보저수지, 체르첸의 자글리그墓에서 출토된 복식을 시대순으로 고찰한다.

#### 1. 孔雀河古墓와 로프노르(B.C. 19C)

1979년 新疆社會科學院 考古研究所는 王柄華소장의 지휘 아래 발굴 조사를 하였다. 위치는 동경 88° 55' 21", 북위 40° 40' 35"로 孔雀河 下流北岸이고 로프노르의 서쪽 약 70km 인 곳이다. 유물로는 毛織物과 尖頂氈帽, 革靴 등이 출토되어, 지금부터 3,800년전에 孔雀河 下流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며,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靴를 신고, 몸을 모직물로 싸고 목축을 하며 살았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sup>4)</sup>

#### 1) 頭衣

孔雀河고분과 로프노르地區의 5호 공동묘지에서 출토된 것을 보면, 당시의 주민들은 尖頂帽나 圓頂帽를 쓰고 있었다. 부녀자들은 짧은 辨髮이고, 남자들은 어깨까지 오는 긴 머리를 毛繩으로 묶었다.

尖頂帽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氈으로 만들었고 비교적 낮으며, 끝이 뾰족한 것으로 귀를 감싸는 아랫부분은 턱아래에서 끈으로 묶어진다. 모자위 장식, 색실로 퀘멘 문양, 동물 가죽으로 톱니 모양의 테를 두른 곳은 몇 개의 깃털 장식이 있다(그림 2). 다른 하나는 비교적



<그림 2> 孔雀河古墓의 帽子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p. 65)

4) 『樓蘭王國と悠ケの美女』(東京:朝日新聞社), 1992, pp.70~79.



<그림 3> 스키타이의 武士

높고 둥글며 송곳 모양이며, 귀나 목을 감싸지는 않는다. 圓頂帽도 펠트로 만들었고, 끝이 둥글고 비교적 커서 아랫부분의 테두리가 귀부근까지 드리워진다.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쓴 「歷史」에는 “스키타이인(塞人)은 높은 모자를 착용했는데, 그 모자는 끈고 단단했으며 끝부분은 뾰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스키타이의 무덤인 쿨오바 고분에서 출토된 B.C.4세기 은제 항아리에 그려진 스키타이의 武士가 쓴 尖頂帽는 높고도 뾰족하며, 귀와 목부분을 감쌀 수 있도록 삼각형으로 재단되어 있다. 모자 끝에는 양이 수

놓아졌고, 귀와 목을 덮는 부분은 큰 양이나 호랑이 등의 동물 도안이 그려져 있다(그림 3). 스키타이의 尖頂帽는 로프노르의 첨정보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모자의 높이는 신분과 관계되어 높을수록 신분도 높은 것 같다. B.C.2세기 흉노의 무덤인 노인우라에서도 같은 모양의 尖頂帽가 출토되어 같은 습속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비교적 낮고 끝이 뾰족한 尖頂帽는 漢代以後에는 매우 드물게 보이지만, 비교적 높고 끝이 둥근 尖頂帽는 唐代에도 여전히 계속되어 투르판의 아스타나 唐代古墳에서 출토된 마부 인형, 중앙아시아의 벽화 등에서 볼 수 있다.

## 2) 衣服

로프노르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일한 의복은 망토이다. 출토될 당시 미이라의 몸을 감싸고 있었으며, 머리 앞에서 나무로 만든 옷핀으로 고정시켰다. 거친 毛布로 길이는 210cm, 너비는 155cm, 아래 테두리에는 둥글게 구부러진 실같은 수술을 달아서 꿰매었다. 실지로 우루무치 박물관에 전시된 미이라의 대부분이 갈색 모포로 싸여 있었다.

## 3) 靴

신발은 소박하고 투박스러워 보이는 長靴이지만, 충분히 발을 감쌀 수 있으며 소가죽으로 만들었고 가죽 실로 꿰매었다. 신발의 끝부분과 옆부분의 앞면에 소량의 깃털이나 색실로 장식하였다.

## 4) 帶

로프노르의 고분에서 거친 모직으로 만든 두 종류의 허리띠가 출토되었다. 비교적 좁고 술이 달린 것과 넓고 각각이 다른 모양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래 테두리에 술을 꿰매었는데 출토될 당시 미이라의 둔부에 둘러져 있었다.

## 2. 하미(哈密)의 우보수(五堡水) 古墳(B.C. 11C)

하미의 우보는 오아시스 농경권으로, 「元和郡縣志」에 의하면 남북조(439~589) 시대부터

많은 鄯善人이 들어왔다고 한다. 五堡는 누란 왕국의 멸망과 깊은 관계를 갖는 오아시스이다.

5)

### 1) 頭衣

미이라는 尖頂帽을 쓰고, 부녀자들의 修髮樣式은 허리까지 늘어지는 길게 땀은 머리였다. 출토된 木俑 중에는 男俑도 尖頂帽을 쓰고 있다.

### 2) 上衣와 袍

부녀자는 길에 홀로 된 가죽 大衣를 입고, 속에 몸에 붙는 毛布로 만든 의복을 입었다. 남자는 큰 옷을 입고 縹白色 모직으로 만든 허리띠를 매었다. 毛布로 만든 長袍는 길이가 135cm이며 옷깃이 없고 소매가 좁다. 아랫단 가장자리와 袖口에 毛帶를 들렀으며, 허리에는 넓은 띠를 땀다. 소매는 두 부분으로 재단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위의 반쪽 부분은 소매라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袍의 길의 한 부분에 속하며 다만 입을 때는 소매의 작용을 할 뿐이다. 아래 반쪽의 재단 부분은 비교적 짧고, 대략 20cm 정도로 袍와 봉합한 부분은 비교적 넓고 소매는 비교적 작다. 이런 재단 방법은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漢代의 新疆 로프산푸란에서 출토된 貫頭衣 형식의 袍와 로프노르지구에서 발견된 唐代의 袍의 소매가 모두 이와 같은 재단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新疆地區 고대 복식의 큰 특징이다.

### 3) 下衣(褲와 裙)

긴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었으며, 男俑은 綴毛織의 바지를 입었고, 女俑은 차홍색 모직으로 된 긴치마를 입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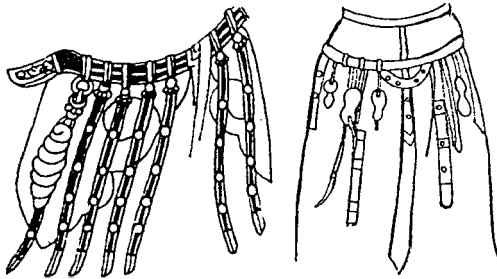
### 4) 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모두 발에서 허리에 이르는 긴 가죽 長靴를 신었다. 부녀자와 어린이의 장화에는 銅으로 만든 장식이 붙어 있다.

### 5) 帶

남자들은 외투에 흰색 모직물로 만든 허리띠를 하였고, 허리띠 위에 숫돌이나 두개의 작은 주머니를 달아 놓았으며, 안에는 청동 장식의 작은칼과 돌송곳이 있다. 작은칼이나 숫돌 등의 일상품을 허리에 매다는 것은 중국의 북방과 서북 소수 민족의 습속이다. 중국에서는 蝶躞帶라고 불렀다(그림 4). 蝶躞帶와 관련된 자료는 우루무치 지역에서 발견되지만, 보이는 것은 단지 5개에 불과하며 그 수량은 이 시기에 접섭대에 차고 다녔던 개수를 반영하는 것 같다. 접섭대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에 전래되어 唐代에는 패용에 대한 규정이 생겨났다. 職事官 3품이상은 금장도(金裝刀), 숫돌(礪石)을 선사 받고, 1품이하의 수건(手巾), 산대(算袋), 패도(佩刀)와 숫돌을 받았다. 5품이상 무관들은 蝶躞七事를 찾는데 七事는 패도, 단도, 숫돌, 계필진(契苾眞), 사궤(唆厥), 침통과 화석 7가지이다.

5) 「樓蘭王國と悠ケの美女」, 앞의 책, p.104.



<그림 4> 蝶躑帶 (『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p.222)

하였고, 펠트모자, 빗, 방추차, 모사(毛絲), 가죽 주머니, 가죽 장화, 버선, 모포, 모직물옷 등이다(그림 5).

『前漢書』西域傳에 “羌國의 서쪽과 체르첸은 서로 접하여 있다. 가죽의 무리는 수초를 따라서 다니며, 밭농사를 짓지 않는다. 鄯善, 체르첸의 풍속은 같다. . . . .”고 班固가 쓴 것은 강국과 체르첸의 관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글리그를 羌人이 점령하였을지도 모른다.<sup>6)</sup> 출토된 남자 미이라는 두 줄로 땀은 머리에 깃이 높은 高領의 무릎까지 오는 毛布로 만든 長袍를 입고, 발목 윗부분까지 덮는 가죽 장화를 신었다. 여자는 네 가닥으로 땀은 머리인데 그 중 두 가닥은 가발이다. 발등까지 덮는 貫頭衣 형식의 거친 모직으로 만든 長袍를 입었는데 옷깃의 목둘레와 옷깃 아래까지 털실로 된 모직 끈을 돌려 장식하였다. 襠이 달린 긴 바지를 입고 발등을 덮는 긴 가죽 장화를 신었다.<sup>8)</sup>

### 1) 頭 衣

尖頂帽 두개는 펠트로 만들었으며, 하나는 검은 색이고 하나는 흰색이다. 圓頂帽은 모직으로 검은 색이다.

### 2) 上衣와 袍

짧은 소매가 달린 모직물 上衣는 길이 53cm, 허리 둘레 74cm, 소매폭 20cm이다. 앞깃이 좌우 서로 맞닿게 되어 있으며 가는 끈이 왼쪽 몸판에 달려 있다.

袍는 毛織으로 만들어졌으며 남자는 깃이 높은 전개형이나 여자는 관두의 형식이다. 交領과 깃 테두리 장식은 이후 新疆의 동부와 남부의 복식에 영향을 주었다.

### 3) 下 衣

자글리그에서 출토된 바지는 중국보다 몇 천년이 빠르며 이후 新疆의 중요한 복식이 되었다.

## 3. 체르첸(且末)의 자글리그(扎洪魯克)墓

체르첸은 호탄에 가까운 중요한 도시이며, 자글리그 묘에서 B.C.11C~B.C.9C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C<sup>14</sup>측정법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2700~3200년간의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상한선은 약 3000년 전이다. 그 이유는 과학적 탄소 실험 결과와 출토된 器物에 의해 나타난 三角紋에 의해서이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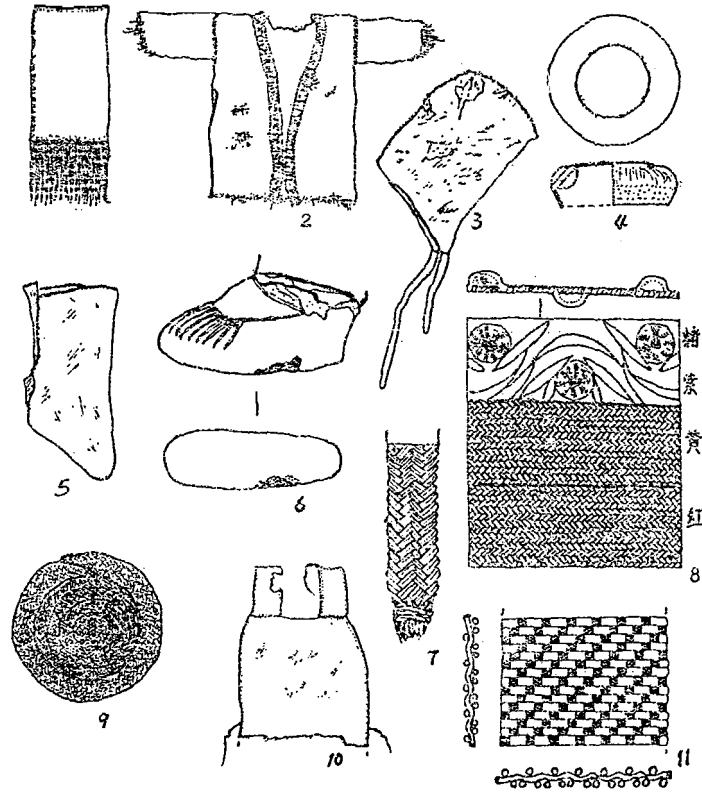
출토된 복식은 거친 양모와 펠트를 사용

6) 巴音格楞蒙古自治州文管所, “且末縣扎洪魯克古墓葬1989年清理簡報”, 『新疆文物』, 25, 1992, p.11.; 王博, “扎洪魯克二號墓兩具古尸的初步研究”, 『新疆文物』, 15, 1989, p.72.

7) 『前漢書』西域傳

若羌國, 西與且末接, 隨畜逐水草, 不田作, 仰鄯善, 且末谷, 山有鐵, 自作兵……”

8) 巴音格楞蒙古自治州文管所, 앞의 책, pp.1~14; 『樓蘭王國と悠々の美女』, 앞의 책, pp.82~87.



1. 毛布口袋 (1:8) 2. 短褐 (1:10) 3. 毡帽 (1:8) 4. 毡帽 (1:8) 5. 毡襪 (1:10) 6. 牛皮靴 (1:6)  
7. 毛織腰帶 (1:1) 8. 毛織毛巾 (2:1) 9. 毛織墊子 (1:5) 10. 毛兜肚 (1:10) 斜紋組織示意圖 (2/1)

<그림 5> 체르첸의 出土服飾 (『新疆文物』, 25 p.10)

漢代以前의 바지는 “고(袴)”라고 하며, 일종의 밑이 없는 바지로 입을 때는 따로 허리 부분을 묶어야 한다. 바지 밑이 있는 바지는 고(袴)라고 하며, 유목민족의 특징이다. “袴를 처음 입은 것은 중국은 漢昭帝 때부터 시작되었다.”<sup>9)</sup>

「事物原會」에 趙武靈王이 褲褶을 개혁적으로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急就篇」에 “褶은 겹쳐 입는 옷으로 최상의 옷이며, 모양은 袍와 같으나 길이가 짧고 소매는 넓다. 좌입의 袍라고도 말한다.”<sup>10)</sup> 고 기록하여 左衽이 胡服의 요소이고 廣袖는 漢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4) 足 衣

소가죽으로 만든 長靴의 바닥과 옆면이 꿰매져 있다. 높이가 무릎까지 올라왔고 봉제는 투박하며 마치 다리와 발을 감싸는 가죽 같았다. 중국에서는 鞋를 신었으며, 인도는 대다수가

9) 「漢書」卷97上 外戚傳 第67 “孝昭上官皇后 光欲皇后……褡人使領皆 爲褡袴 多其帶 後宮莫有進者。服虎曰 褡袴 有前後當 不得交通也。師古曰 使令 所使之人也。袴 古袴字也。褡袴即令之混當袴也。”

10) 「急就篇」“褶爲重衣最上者也，其形若袍，短衣而廣袖，曰左衽袍也。”



맨발이다. 중앙아시아의 다수가 유목을 하며 살았는데, 산간 草地에서 주로 활동했으며, 반드시 물을 건너야만 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長靴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자글 리그의 長靴는 중앙아시아의 초기 長靴를 대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서는 趙武靈王이 常服으로 胡服을 입었으며, 靴를 신었다. 「中華古今注」에 “靴는 西胡(西域)에서 전래된 것”<sup>11)</sup> 이라고 하였다.

흰색의 켈트를 봉합한 켈트버선은 두께 1.2cm, 길이 24.5cm 이다. 「釋名」에 “襪은 末이다. 즉, 다리 끝이다.”<sup>12)</sup> 라고 하였다.

#### 5) 織 物

모직물 조각이 여러개 출토되었는데 波頭文이 그려진 것은 길이가 147cm, 폭이 60cm 였다.

#### 6) 文 身

남자와 여자의 미이라 1명은 얼굴에 양팔모양의 紋飾을 옹황, 자황, 연황, 적철광 등을 사용해서 눈, 코, 이마, 광대뼈를 발랐다. 「隋書」西域傳 女國 習俗에 “남녀 모두 얼굴에 채색을 하여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것을 바꾸었다.”<sup>13)</sup> 고 하였고, 「新唐書」吐蕃傳에 “얼굴을 붉게 칠하는 습속이 있다.”<sup>14)</sup> 고 하였다. 「新唐書」西域傳에 “女國 지역이 吐蕃의 서쪽, 于闐의 남쪽에 있으며 얼굴의 文身은 고대 藏族과 신장 남부 지역의 오래된 습속이라고 하였다.”<sup>15)</sup>

### IV. 漢代~南北朝時期 (B.C. 200~A.D.589)의 出土服飾

#### 1. 호탄(和田)의 로프산푸란(洛浦山普拉)墓

로푸산푸란墓는 호탄의 동쪽 약 30km 지역에 있는 로부현성 서남쪽 14리에 있다. 로부는 고대 실크로드의 남도이며 출토품 중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비단이 출토되었다. 묘의 부근에는 B.C. 4세기~5세기의 불교 유적이 있으며 기원 전후의 서역 남도의 실태를 말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말인 半人半馬像과 머리띠를 두른 戰士像의 벽걸이, 대칭적인 花卉와 混蟲의인 모직물 도안에서 보면, 서방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 모직물 중에 많은 態鹿紋, 山形紋과 식물변형문 도안은 북방 초원 문화의 영향이다. 호탄이 일찍부터 인도, 중앙 아시아와 밀접하였으므로 로프산푸란에 파르테니아나 파크도리아에서 이런 모직물이 왔을 가능성도 있다.<sup>16)</sup>

출토된 복식은 모직품 위주로 長衣, 氍衣, 가죽 바지, 모자 등이 특징적이다. 長衣는 관두식으로 漢式이나 좌임호복과의 차이가 크다. 남자는 짧은 내의, 여성은 衣襟 모두 관두식인 것

11) 「中華古今注」 “靴者, 蓋古西胡也. 皆趙武靈王常服之.”

12) 「釋名」卷5, 釋衣服條 “襪末也. 在脚末也”

13) 「隋書」卷 83, 列傳 第 48, 西域

男女皆以彩色塗面, 一日之中, 或數度變改之. 人皆被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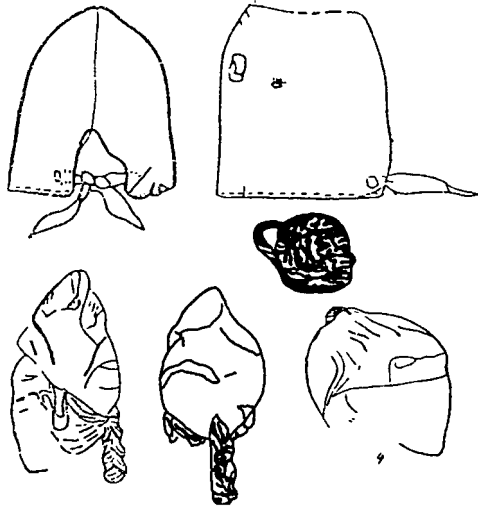
14) 「唐書」卷 216上, 列傳 第141上, 吐蕃上

衣率氍毹, 以赭塗面爲好. 婦人辨髮而髻之.

15) 「唐書」卷 221上, 列傳 第146上, 西域上

東與吐蕃, 黨項, 茂州獠, 西屬三波訶, 北距于闐, 東南屬雅州羅女蠻, 白狼夷.

16) 「樓蘭王國と悠々の美女」, 앞의 책, pp.129~130.



<그림 6> 호탄의 修髮樣式  
(「新疆文物」, 24 p.55)

은 역시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다.

### 1) 頭衣와 修髮樣式

모자는 7개가 출토되었는데 그 중 4개는 氍帽이고 3개는 褐帽이다. 氍帽은 끝이 뾰족하거나 둥근 것, 끝이 타원형인 것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거친 毛絲로 꿰매고 뒤는 터 버렸으며 끈으로 묶을 수 있게 했다. 모자의 높이는 25cm 정도로 氍帽은 胡帽의 일종이다.

남자의 修髮樣式은 辨髮와 상투 두 종류이다. 辨髮은 세가닥을 합쳐서 하나로 하였으며, 상투는 작게 틀어 올렸다(그림 6).

신강 남부 지역 초기의 남자 修髮樣式은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漢代 이전에는 여러 가닥의 땅은 머리였으며 상투도 있었다. 북위 시대에 이르면 변화가 생겨난다.

「宋雲行記」에는 于闐의 습속을 “남자의 머리는 뽕을 당했을 때는 剪髮로 깎으며, 머리카락의 길이는 4寸으로,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唐書」西域傳에 카라샤르(焉耆), 쿠차(龜茲)는 “祝髮”이나 “斷髮”이라고 하였으니 역시 剪髮이다. 결국 修髮樣式은 북위 시대에서 당대에 이르면서 신강 남부 지역이 剪髮로 변하였던 것이다. 「魏書」西域傳에 페르시아(波斯)는 “丈夫剪髮”, 에후달(壓嚩國)은 “머리는 모두 剪髮”, 康居는 “丈夫剪髮”이라고 하여 2세기 후반경 신강 남부 지역이 여러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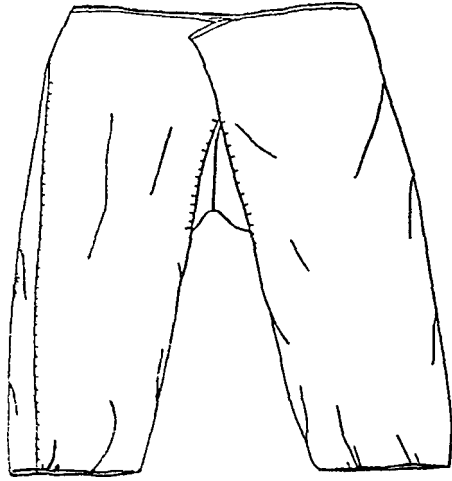
부녀의 머리는 여러 가닥으로 땅은 辨髮로서 세가닥을 합쳐서 한 가닥으로 땅는다. 땅을 때는 네가닥으로 한다. 가발을 넣어 땅는 것은 2, 4, 6, 8가닥 등이다. 그 중 두 가닥은 가발이나 말총으로 채웠다. B.C. 5~4세기경에는 여러 가닥으로 땅은 머리 형태였다. 「北史」吐谷渾傳에 “吐谷渾의 부녀는 많이 묶을수록 귀하다.”고 하였는데 多辨 역시 같은 뜻일 것이다.

### 2) 上衣와 下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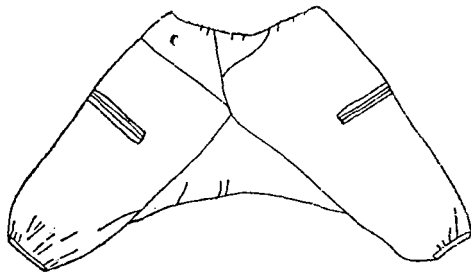
황색 견으로 만든 상의는 아동용이며 관두식으로 긴소매에 盤領이다. 絹短袂衣 1벌은 둥근 깃에 긴소매가 달려 있다. 웰트로 만든 옷은 3벌로 2벌은 성인용이고 1벌은 아동용이다.

출토된 바지(그림 7)는 가죽, 거친 모포(褐) 9벌, 황색견 1벌, 人首馬身 모양이 있는 革毛이다. 大褱이 달려 있다. 「册府元龜」外臣部に “于闐의 서쪽 작은 나라이다. 풍속은 于闐과 같다. 옷은 古貝布로 만든 길고 좁은 소매가 달린 袍와 小口褲를 입는다.”<sup>17)</sup>고 하여 노인우라에서 출토된 大褱小口褲(그림 8)와 같은 모습이다. 아래가 오므라진 바지는 중앙아시아와 북방 민족이 입던 형식이다. 니아에서 발견된 바지도 이런 모양이며 新疆以西 복식과 관계가 있

17) 「册府元龜」外臣部 “于闐國其俗衣古貝衣, 作長身小袖袍, 小口褲”



<그림 7> 미달린 바지  
(「新疆文物」, 24 p.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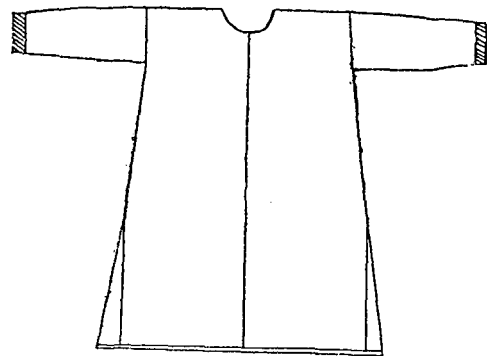
<그림 8> 노인우라의 바지  
(「新疆文物」, 24 p.57)

다.

### 3) 長袍

40벌이 출토되었으며 펠트나 거친 모포로 만들었다. 어른 아이 모두 입었다. 관두의 형식이며 발밑까지 내려오며, 둥글게 판 목둘레이며, 어떤 것은 왼쪽 또는 양쪽이 트여 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좌우 양쪽을 각각 박아서 삼각형의 무를 덧대어 增幅시킨 것(그림 9)이고, 다른 하나는 관두식포에 소매가 달린 것이다(그림 10). 무를 대는 것은 신강의 고대 복식과 중국 복식의 외적 형태상 구별되는 점으로, 증폭하는 재단 방법은 니아의 錦袍에서 볼 수 있으며, 당대 전후 이런 방법의 사용은



<그림 9> 圓領長袍  
(「新疆文物」, 24 p.56)

볼 수 없다.

「魏書」西域傳 페르시아條에는 “그 풍속에 丈夫는 貫頭衫을 입으며 아래까지 터져 있다.”<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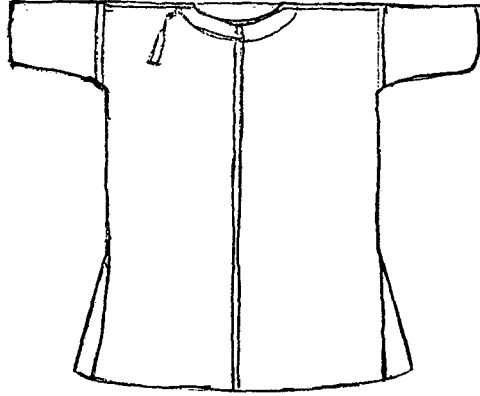
「舊唐書」西域傳 페르시아條에는 “왕은 錦袍를 입고 瓔珞을 덧붙였으며, 丈夫는 앞이 트이지 않은 옷을 입는다.”<sup>19)</sup>고 하였으니 “貫頭衫”, “衣不開襟袍”는 관두의 형식인 긴 포이다. <그

18) 「魏書」卷 102, 列傳 第90, 西域

其俗 丈夫剪髮, 戴白皮帽, 貫頭衫, 兩廂近下開之, 亦有巾幘, 緣以織成, 婦女服大衫, 披大幘, 其髮前爲鬘, 後披之, 飾以金銀花, 仍貫五色珠, 絡之於膊.

19) 「舊唐書」卷 198, 列傳 第148, 西域

其王冠金花冠, 坐獅子牀, 服錦袍, 加以瓔珞. . . . . 丈夫剪髮, 戴白皮帽, 衣不開襟, 并有巾幘.



<그림 10> 貫頭長袍  
(「新疆文物」, 24 p.56)

나쁘며 높이 80cm, 바닥 길이 23cm인 것이 8쌍 출토되었다.

#### 5) 帶

모직물 끈은 59개이며 주로 허리띠였으며 장식띠도 있다.

#### 6) 織物

직물은 모직물과 견직물, 면직물이 출토되었으며 비율은 85% : 10% : 5%로 주로 모직물이 대부분이다. 견직물에는 견과 縑이 주요 직물이며 綺는 단편이 출토되었고 錦도 있다. 人像紋錦, 人首馬身紋錦이 대표적인 錦이다. 면직물은 원색 위주의 염색으로 초록색 평문 조적이 많다.

#### 7) 文身

「大唐西域記」卷12 佉沙國朝에 文身 습속이 있다고 한다. 고대 신강 남부 지역에서는 문신이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新唐書」黠戛斯傳에는 “남자가 용감하면 손에 문신을 새기고, 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마에 문신을 한다.”<sup>20)</sup>고 기록되어 있다.<sup>21)</sup>

### 2. 민풍(民風)의 니아(尼雅)墓

민풍현의 북방 약 120km의 사막 중에 있는 고대 니아(精絕國)의 유적이다. 1959年 新疆위구르 자치구 박물관의 고고대는 A.D. 2세기 경의 부부합장묘를 발굴하고 다양한 유물을 수집하였다. 당시 니아의 상류계급 사람들이 점점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sup>22)</sup>

20) 「新唐書」黠戛斯傳 “男子有勇跡其手, 女子嫁點頂”

21) 「唐書」卷 217下, 列傳 第142下, 回鶻下(黠戛斯)

男子有勇跡其手, 女已嫁點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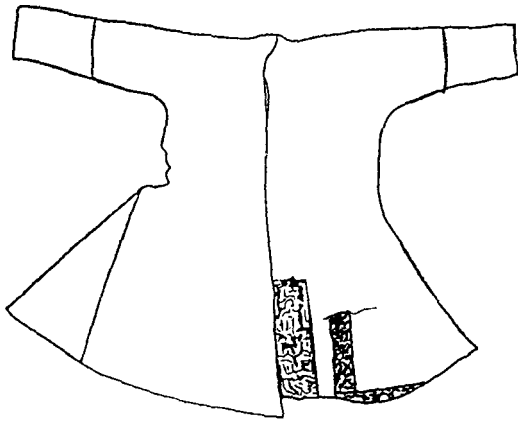
22) 「樓蘭王國と悠ケの美女」, 앞의 책, pp.88~96.

림 10)은 길이가 150cm이며 30cm의 짧은 소매가 달린 長袍이다. 관두의 형식의 長袍는 페르시아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璽珞은 페르시아 왕복의 장식으로 袍 위에 달린 많은 모직물 띠에 璽珞이 달려 있다.

#### 4) 足衣

靴는 길이 가죽이고 안이 펠트인 것 3쌍, 겹은 褐이고 안은 펠트인 것 2쌍, 펠트 3쌍 모두 11쌍이다. 모든 가죽장화는 동물의 힘줄로 꿰매었다. 鞋는 겹은 가죽이고 안은 펠트인 것이 1쌍 출토되었다. 靴나 鞋의 최대 특징은 재료의 다양성이다.

펠트로 만든 버전은 대부분 보존 상태가



<그림 11> 니아의 '萬世如意' 錦袍  
(「新疆文物」, 24 p.58)

남자는 모자를 쓰고 '萬事如意' 錦袍와 바지를 입었고, 여자도 역시 모자를 쓰고 홑겹의 장삼을 겉에 입고 안에는 襪衣를 입었다. 속에 긴바지를 입고 겉에는 긴치마를 입었다. '延年益壽大直子孫紋錦'의 錦褙과 錦手奪 등이 발굴되었다.

### 1) 頭衣와 修髮樣式

남자의 頭衣는 두 종류이다. 하나는 황색 견으로 만든 單帽, 다른 하나는 겉은 錦이고 안은 麻布이며 중간에는 夾絲棉이 들어 있으며 평평하다. 「北史」西域傳에 기록된 于闐王이 쓴 '練錦帽'라는 것이 이런 양식인지도 모르겠다.

여자는 여러 가닥으로 땀은 것으로 보아 고위층인 것 같다. 흰색 견으로 만든 평평한 홑겹의 모자가 씌워 있다. 아래 가장자리는 붉은색 錦으로 둘러져 있다. 앞이마에 菱形錦이 붙어 있다. 로프노트의 모자와 같은 형태이다.

### 2) 上衣와 袍

'萬事如意' 錦袍는 남성용으로 홍색과 어두운 황색의 복합색 錦袍이다. 총길이 122cm, 左襟이며 어깨 부분에 손을 덮는 긴소매가 달렸고, 오른쪽에 삼각형의 무가 달려 있다. 이 양식에서 고대 신강 남부 지역의 전통복식임을 알 수 있다(그림 11).

여자의 上衣는 견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는 貫頭形에 廣袖이고, 하나는 前開形이다.

長衫은 황색 견으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120cm로 아래까지 덮을 정도이며 통도 넓고 高領이 달렸다. 廣袖이며, 허리 부분 양쪽에 綢帶 5개의 흔적이 있다. 廣袖는 중국에서 늘 보는 것이지만, 모양은 같지 않다.

「洛陽伽藍記」에 于闐부녀는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띠를 맨다.”<sup>23)</sup>고 하여 니아의 衫의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衫은 호탄 일대의 전통복식으로 「魏書」西域傳에 페르시아 부녀는 “大衫”을 입는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고고학 자료에 의해 한대 이전의 복장에서 남녀 모두 허리에 많은 띠를 묶었고, 허리 양쪽에 띠를 끼는 옷은 아마도 이 시기의 새로운 양식인 것 같다.

襖는 황색 綢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100cm이고 소매가 길고 좁다. 아래로 가며 넓어지고 허리 두 군데에 꿰맨 비단띠 4개, 깃과 수구밧 양어깨에 10~20cm 混物紋 刺繡가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소매가 긴 것은 적지 않으나 수구가 넓다. 길고 좁은 소매는 舞女의 짧은 저고리나 袍에 많으며 襖중에는 적다. 소매 길이 221cm 이므로 東女國의 “袖委于地” 즉, 소매가 땅에까지 드리운 모양으로 서로 관계가 있다.

23) 「洛陽伽藍記」, 卷 5 “袴衫東帶”

### 3) 下衣

수놓은 덧단이 붙어 있는 남성용 바지와 여성용 치마가 출토되었다.

치마는 황색 줄무늬 菱文綺로 만들었고 총길이 93cm, 허리 넓이 50cm, 아래 도련이 120cm이다. 『舊唐書』西戎에 “페르시아의 부인은 巾幘와 치마·저고리를 입는다.”고 한 것과 니아의 치마는 정확히 들어맞으므로 이 치마는 페르시아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 4) 足衣

모직물로 만든 氍鞋와 麻鞋가 출토되었다. '延年益壽宣子孫'의 名文이 들은 錦으로 만든 남성용 버선과, '陽'자 무늬의 錦으로 만든 여성용 버선(그림 12)과 끈이 출토되었다.

### 5) 織物

모직물은 絨毯과 모직물 장식 띠 단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絨毯은 서양의 주제인 인물, 짐승, 포도문의 罽로 만든 카펫이다(그림 13).

견직물은 綺와 錦이 출토되었는데 綺는 치마의 조각이고 錦은 萬世如意, 長樂明光, 韓仁繡紋云吉子孫無極, 登高明望四海, 延年益壽大宜子孫, 昌樂 등의 문자를 문양 사이사이에 직조한 화려한 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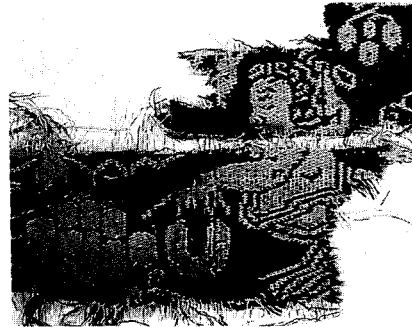
### 3. 로프노르(羅布)의 고대(高台)墓

高台墓에서 출토된 복식은 絹衣 1벌과 가죽으로 만든 鞋이다. 絹衣는 황갈색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左衽이고 高領이며 소매가 길고 어깨와 아래 도련의 넓이가 같다. 허리 양측에 두 개의 비단 띠를 매달고, 깃과 소매 앞깃과 아래도련은 황색 비단으로 장식을 했다.

長沙馬王堆 1號墓에서 출토한 信期繡 錦袍와 서로 닮았다. 허리 양측에 꿰뚫은 비단 허리띠는 니아 복식의 특징이고, 左衽역시 胡服樣式이다. 漢代의 복식의 기초 위에서 西域 복장이 융화되어 흡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여성용 陽宇 버선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p.92)



<그림 13> 葡萄文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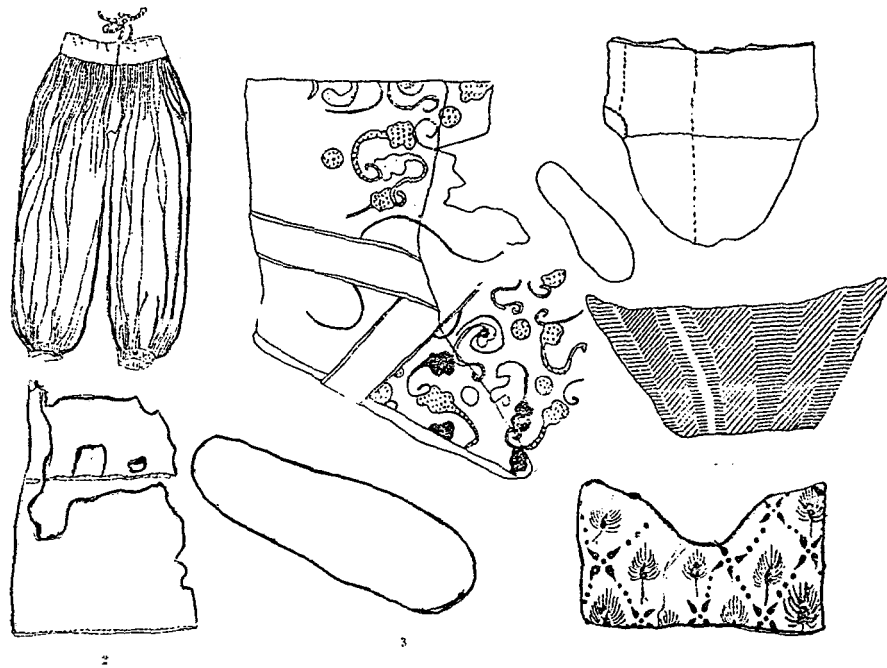
가죽혜는 양가죽으로 만들었으며 중간은 펠트, 바닥은 소가죽이다. 양측 면과 바닥은 麻실로 꿰매져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재료로 만든 鞋는 山普拉服飾에서 본다. 흉노역시 이런 종류의 鞋를 만드는 방식이 있었는데, 한대 전후 신강지역의 민족과 흉노족이 공유한 靴나 鞋를 만드는 공예 제작 방법이다.

#### 4. 이리현(尉犁縣)의 영반(營盤)墓(魏晉時代: A.D. 220~420)

尉犁縣은 동은 누란과 서는 쿠차와 북은 지금의 투르판 분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불탑 및 봉화대가 분포되어 있다. 동서 교통 도로상의 중요한 곳이다. 출토된 복식은 남자의 바지와 신발, 버선, 치마의 조각, 띠 등이고 직물은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면직물 등이 출토되었는데, 여기에서 활약하던 屯田兵의 생활을 말해 준다(그림 14).<sup>24)</sup>

##### 1) 上衣

상의 조각은 길이 75cm, 아래 도련 124cm, 소매가 없는 여름용 내의로 보인다.



1. 褲(M 4:3) 2. 上衣(M 10:11) 3. 麻布靴(M 1:1) 4. 襪(M 10:5) 5, 6. 杖(M 10:7, M 1:4)(1, 2 爲 1/24, 3, 4, 6 爲 1/6, 5 爲 1/12, 除 3外, 平均毛織物)

<그림 14> 營盤出土 紡織品 (『文物』, 461 p.24)

24) 『樓蘭王國と悠々の美女』, 앞의 책, pp.97~103.



<그림 15> 남성용 모직 바지 (「樓蘭王國  
と悠久の美女」p.100)

었다. 鬪는 「說文」에 “鬪, 西胡毛布也.”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두꺼운 모직물 위에 緯錦을 붙여서 사용한 서양식 문양의 직물이다.

## 5. 투르판(吐魯番)의 카라호자(哈喇和卓)墓(魏晉南北朝)

### 1) 頭衣와 修髮樣式

남자는 머리를 자른 剪髮로 위의 98호묘 남주인도 깃 근치만큼 오는 剪髮이 분명하다. 剪髮은 漢의 修髮樣式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습속이다. 新疆地域의 호탄, 카라샤르 등의 지역에서도 剪髮로 빗었다. 高昌地域의 剪髮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부녀의 修髮樣式은 垂髻環髻이다. 아스타나 98호묘 벽화 중의 부녀도 머리를 땅아서 둘러 앉았다. 「冊府元龜」卷961, 外臣部에 기록된 高昌婦女는 “여자는 땅아서 늘어뜨리지 않는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修髮樣式 역시 嘉峪關의 魏晉時代 묘의 벽화에 그려진 부녀와 같다(그림 16).

河西地區의 습속으로 鮮卑族에 의해서 高昌地域에 도입되었다. 「隋書」南室韋에 “婦女盤髮”, 백제의 부녀는 “땅은 머리를 뒤로 늘이며, 결혼하면 두갈래로 머리에 서린다.”고 하였다. 25) 신라는 “부인은 땅은 머리를 머리에 두른다.”고 하였다. 26) 巾幘은 가발을 의미하며 고구려

25) 「隋書」卷 81, 列傳 第46, 東夷  
婦人不加粉黛, 女辨髮垂後, 已出嫁則分爲兩道, 盤於頭上.  
26) 「隋書」卷 81, 列傳 第46, 東夷  
婦人辨髮繞頭, 以雜綵及珠爲飾.

### 2) 下衣

모직물로 만든 남성용 바지로 가는 주름이 많이 잡혀서 넉넉하다. 뒤트임이 있으며, 모직물 끈으로 묶어 입었다. 발목 부분을 오그린 모양이다(그림 15).

### 3) 足衣

靴의 겉은 麻이고 안은 毛이며 3.3cm 폭인 목면의 帶가 발등에 둘러져 있다. 바닥은 皮絨이다.

버선은 겉은 적갈색의 모직물이고 안에는 켈트가 들어 있다. 버선목은 大紅色이다.

### 4) 織物

모직물의 과일사에 백·적·남·황록·흑색을 사용하여 터키의 卍文, 動物文 등의 문양을 넣은 카펫과 황색의 평직 모직물에 綴織의 모양이 있는 단편이 출토되





<그림 16> 魏晉時代의 環髻



<그림 17> 고구려 안악 3호분 여주인공의 環髻

안악 3호분 벽화 중의 여주인의 머리형태는 環髻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그림 17). 盤髮의 구체적인 양식에 대한 설명은 없으나 盤髮은 둥글게 두른 머리로 가발을 더하여 빚으면 環髻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鮮卑族은 “被髮左衽이며 옛날에는 素頭라고 한다.”<sup>27)</sup>고 기록되어 있는데 素頭는 辨髮로 선비족의 변발이다. 선비는 원래 흉노의 동쪽에 살았다. 盤髮, 環髻는 선비족과 흉노와 가깝기 때문에 풍속과 습속이 필요에 의해 서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선비족의 부녀의 환개는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흉노가 서쪽으로 옮겨간 후 鮮卑族이 西夏에 유입되어 거주하면서 環髻라는 修髮樣式을 들여왔다.

머리에는 巾幘을 쓰고 장포를 입었다. ‘紙繪地主生活圖’의 지주, 카라호자 98호 벽화의 남자 주인 모습이다. 건책은 본래 중국의 쓰개로, 漢晉時代의 중요한 것은 平巾幘과 介幘 두 가지가 있다. 위에서 말한 인물은 平巾幘을 쓰고 시종과 일반 남자는 巾幘을 쓴다.

## 2) 上衣와 下衣 · 袍

長袍를 입었는데 右衽이며 품이 넉넉하며 소매가 크다.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시종은 長袍를 입었는데 左衽이다. 胡服의 영향이다. 일반 남자는 위에는 저고리를 입고 아래에는 바지를 입는다. 泥俑에서 착장 모습을 볼 수 있다. 저고리의 깃은 목위까지 올라오는 高領이고 右衽인데 역시 漢晉 시대 중국 남자가 늘 입는 양식이다. 그 중의 한 俑은 團領 저고리를 입고 있다(그림 18). 漢代의 저고리에는 高領이나 直領이 많고 團領 저고리는 없었다. 高昌 지역의 특유한 복식으로 西域의 영향이다.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尖頂帽를 쓴 木俑이 카라호자 98호 묘에서 출토되었다. ‘紙繪地主生活圖’ 중의 마부가 좁은 소매의 아래가 넓은 긴 옷, 바지를 입고 혜를 신은 것은 중국에서 말하는 褶을 입은 胡服이다. 袴褶에서의 褶은 저고리를, 袴는 바지를 말하며, 북방 고대 소수 민족의 복식이 戰國時代에 중국으로 전래되어 漢魏時代에는 주로 在軍이 입었다. 魏晉時代 이후 중국의 常服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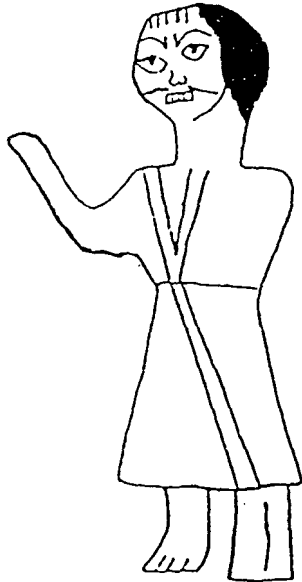
27) 『隋書』卷 84, 列傳 第 49, 北狄  
南室韋在契丹北三千里, . . . . . 其俗丈夫皆被髮, 婦人盤髮, 衣服與契丹同.



<그림 18> 투르판의 圓領上衣  
(「新疆文物」, 24 p.60)

高昌地區는 북방 민족이 활약하던 지역의 하나로 옛날 복식 중에 그 제도가 남아 있다. 카라호자 98호묘에서 출토된 하나의 木俑이 左襟에 窄袖인 무릎 아래까지 오는 袍를 입고 있는데 서역의 양식이다(그림 19).

「通典」高昌條에 부녀의 복식은 “대략 중국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출토된 부녀 복식에 의하면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그런 양상이었다. 襦裙 역시 중국 부녀의 전통 복식이다. 일반인은 저고리를 짧게, 차마는 길게 입었다. 역시 중국의 襦裙차림이다. 현대에서 남북조시대 중국 부녀복식의 중요한 두 양식은 袍樣式과 襦裙樣式으로 소매가 길다. 부녀들이 男裝을 하였는데, 그림 중의 女俑은 左襟에 窄袖인 옷과 바지를 입었다. 左襟은 남자 복식과 같지 않다. 98호묘 중의 여주인과 시녀는 남주인처럼 右襟에 품이 넉넉하며 큰 소매가 달린 長袍를 입었다.



<그림 19> 카라호자 98墓 出土 木俑  
(「新疆文物」, 24 p.60)



<그림 20> 무용중의 襦裙  
(「韓國美術全集」, 4 p.70)

### 3) 織物

의복의 재료는 원래 피혁이나 모직품을 사용하였고 면포, 비단 등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해와 화는 웰트, 모직품이 주로 사용되었고 복합된 재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 V. 結 論

中央아시아의 복식 문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新疆에서 출토된 복식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頭衣는 침정모나 원정모이며 材料는 웰트, 毛皮, 毛織物을 사용하였고 새의 깃털 장식이나 나무편을 꽂았다. 스키타이와 흉노의 침정모도 같은 유형으로 漢文化의 영향 이후에도 변화 없이 계속된다. 여자는 여러 가닥의 땀은 머리로 가닥이 많을수록 높고 귀한 사람이다. 남자는 땅거나 상투였는데, 북위 시대 이후 剪髮이 전래되었다. 環髻는 선바쪽에 의해 들어온 것으로 위진시대 이후 널리 퍼졌다.
2. 출토 복식은 襦·袴·袍·靴·襪 등이다. 상의는 여자의 경우 筒袖·貫頭型이고, 남자는 筒袖·前開型이었다. 남녀 모두 袍와 바지를 입었고 웰트 버전과 가죽 長靴를 신었다. 漢代 이전에는 띠로 둘러 입었으며, 무릎 댄 袍, 襠을 댄 바지, 버전이 靴보다 긴 것은 기마유목민족 복식의 특징이다. 아래를 오므리는 바지는 북방 중앙아시아의 특징이다. 뽕족한 모자와 바지와 靴는 중앙아시아에서 B.C.19 세기 이전부터 착용된 것이다.
3. 出土織物은 화려한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많았다. 주로 氈褐 즉 모직물이었으며, 견직물, 면직물, 마직물 등이 있다. B.C.2세기 이후에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의 실크가 신강지구로 들어와 혼용되어 상류 계층에서는 袍, 버전, 장갑 등에 실크를 사용하였다. 문양에는 유목민의 특징인 양이나 동물문이 혼용되거나 서양 인물상이 표현되어 서양과 중국의 영향이 혼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중국에서 新疆으로 보낸 錦에는 문자를 직조해 넣었다.
4. 액세서리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가 출토되었고 수많은 玉, 유리, 구슬 등이 발굴된 것으로 보아 유목민은 주술적, 장식적, 부의 상징적 목적에서 많은 장신구를 휴대했다고 본다. 文身은 新疆 남부 지방에서 오래된 習俗으로 남자는 용맹을, 여자는 혼인을 상징하였다.
5. 한국 복식과는 뽕족한 모자와 깃털 장식, 무릎 달아 폭을 넓은 袍, 기마에 편하도록 襠을 댄 바지, 가죽장화와 버전, 의복의 깃, 수구, 아래 도련에 선장식을 두른 점이 고구려의 襦와 비슷하다(그림 20). 서방의 영향은 남성의 剪髮, 여성의 貫頭衣, 盤領과 圓領, 動物文樣 및 서양 인물을 잔 緯錦 등에 나타난다.

## 參考文獻

1. 「魏書」, 「漢書」, 「前漢書」, 「隋書」, 「唐書」, 「舊唐書」, 「冊府元龜」, 「洛陽伽藍記」.
2. 朝日新聞社,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 日本國交正常化20周年記念展, 1992~1993年.
3. 「アジア歴史事典」, 1~8. 平凡社, 1982.
4. 閻文儒, 「佛教考古(一) 新疆天山以南的石窟」, 「文物」, 1962. 7~8.
5. 楊建新, 「中國西北少數民族史」, 寧夏人民出版社, 1988.

6.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新疆出土文物」, 1975.
7. 「樓蘭古國」, 烏魯木齊:新疆攝影藝術出版社, 1987.
8. 「新疆風物志」, 烏魯木齊:人民出版社, 1988.
9. 新疆文物考古研究所,“新疆尉犁縣因半古墓調查”,「文物」, 461, 1994.10.
10. 杉本正年著,「東洋服裝史論攷」, 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1974.
11. 杉本正年, 小川安朗, 長澤和俊, 服裝文化協會編集,「服裝文化」, 150, 1976.
12. 松田壽男,「シルクロードと日本」東京:雄山閣, 1981.
13. 梁勇,“新疆古代墓葬所見唐代以前的服飾”,「新疆文物」, 24, 1992.
14. 李肖水「中國西域民族服飾研究」, 烏魯木齊:新疆人民出版社, 1995.
15. 中國新疆出土文物「シルクロード展」, 東京:旭通信社, 1986.
16. 中華人民共和國「シルクロード文物展」, 讀賣新聞社, 1973.
17. 巴音格楞蒙古自治州文普所,“且末縣 洪魯克古墓葬1989年 理簡報”,「新疆文物」, 25, 1992